



“TV가 과소비 부추긴다”

마침내 IMF에 제재금융을 요청했고, 우리 경제의 사령관 자리를 그들에게 양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의 하락조정, 재정 긴축을 요구할 것이 확실해 씁쓸이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은 대당실업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자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옷깃까지 운동까지 보이는 등 국민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외국 동전모으기에 초등학교생의 고사리손도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국

SBS '살림...' 한회 경품 1천만원 넘기도 케이블TV 시청률 조사시간 외제경품 '일색'

가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흥청거리는 모습이다. 바로 TV다.

지난 25일 방영된 SBS '살림을 잡아라' 30여분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품이 1천만원을 넘는다. 사이판 여행권을 비롯 전자렌지 호박속삭린 침구세트 무선전화기 등 무려 30여종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TV가 과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가입자가 2백만 가구를 넘어선 케

이블TV는 이에 수입품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시청률조사 기간이었던 11월 10~15일 각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경품을 내걸었다. 다큐멘터리 전문의 한 채널은 전화응답의 방법으로 1백80만원짜리 와이드TV, 1백30만원짜리 스토브 세트, 50만원짜리 클래식선집 등을 1천250명에게 나눠줬다. 보석 약세사리 등 생활필수품과는 거리가 먼 품목을 주로 하는 한정·특가판매상품전은 시청자들을 집단 소령동독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TV 3사가 자체에 나섰다. '경제를 살릴시다' 등을 제목으로 특집방송을 긴

급 편성했다. 그리고 여행권 상품도 해외에서 국내여행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해외상품 소개 프로그램 축소에 나섰다. 여전히 미흡하다.

출연자들의 호화의상, 과도한 경품제공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어떻게 20대의 극중 모델이 40명 이상으로 보이는 중형아파트에서 살고, 역시 20대의 극중인물이 호화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지, 꼭 그레아만 하지 않고 싶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보보보'에 출연한 아이가 입었던 조끼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 때릴까 백화점까지 갔다가 합당한 가격이 6만8천원이라는 소리에 발걸음을 돌렸다는 주부의 얘기가.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TV프로그램을 바로잡기에 어렵다. 국민들의 감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성운 기자

‘벌이는 1만불, 씹어먹는 3만불’. 우리 국민의 잘못된 소비행태를 나타낸 말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기업의 무분별한 외형 키우기와 함께 외제·사치품 선호와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 소득에 걸맞지 않는 액화된 소비 생활이 국제통화기금(IMF)을 빌어 쓰게 된 국가적인 도산을 야기한 것이다. 12월 3일 소비자 보호의 날을 맞아 불지디온 소비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공무원도 “경제 살리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공직자 다짐대회’가 지난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3천9백여명의 참가 공무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플러스펜 깎아쓰기·자동차 10부제 부활 등 “경제 살리자” 절약운동 확산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각종 절약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플러스펜 깎아쓰기’ 운동에 들어갔다. 잉크가 남아있는 데 끝이 뚫려진 플러스펜의 필름을 다시 뽀족하게 깎아 쓸모있게 쓸 7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26일 전사원들에게 ‘가로복사’를 지시했다. 세로복사 때보다 복사물을 읽기 위해 기계가 움직이는 거리를 줄일 수 있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하루 12~24시간 켜놓던 네온사인 등 전등들을 매장 개점시간에 맞춰 9시간만 켜기로 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은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시민단체들은 또 △자동차 10부제 자진부활 △보급금 10% 의무지출 △음식을 남기지 않기 △연말연시 호화행사 억제 △해외여행 및 자녀 어학연수 자제 등의 실천운동에 나섰다.

서울시 경복도 등 자치단체들도 ‘달려와 저축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 씹어먹이 줄이기에 나섰다. 강동구는 유류 사용자제를 위해 옷 한벌 꺼내고 근무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5백여명도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갖고 경제회생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청백리들 해외연수 반발

내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청백리사상 수상자인 정주시흥대구 민방위대난 관리과장 원봉주씨 등 수상자 18명은 외화절감을 위해 자신들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해외연수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자 부부들은 지난 27일부터 7박 8일 동안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행정연수가 계획됐었다.

청각장애인에 무료 보청기

25일 서울시로부터 ‘생활 현장의 숨은 일꾼상’을 수상한 홍영희씨(49). 지난해 2월 보청기 판매점을 연 홍씨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수용시설 원장의 보청기 기증 부탁을 받고부터 불우한 청각장애인 돕기에 나섰다. 지금까지 3백17명의 어려운 이웃이 소리를 되찾았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하지만 후원자를 모집, 평생동안 청각장애인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국내 첫 전자도서관 개동

국내 첫 전자도서관 (www.dlibrary.co.kr)이 개동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빈병 공초제거 연 3백억

재활용이 가능한 주류·음료병에 담배꽂초 등 이물질 제거엔 연간 3백억원의 돈이 낭비된다. 매년 재사용되는 병(소주 맥주 음료수)은 48억개로 이물질 제거비로만 2백40억원이 들어간다. (환경부 자료) 여기에 오물이 남아 폐기처리하는 비용을 합하면 3백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TV가 과소비를 부추긴다

TV가 대통령을 뽑는 시대. TV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만큼 TV의 책임도 크다. 옷겨입기운동까지 벌이는 국민들에게서 TV는 배워야 한다. 기왕에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되고 있는 “TV장터”를 중소기업체의 우수상품을 알려 기업도 살리고 국민들의 건전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상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고 선택이 단호할 때 기

업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돌려주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자.

경전에서 가르치는 절욕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자.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念)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 담는 일에만 정진해야 함을 안다.” <팔십이각경>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6일 교통범죄로 받은 돈을 가로챌 이 경찰서 김모순경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순경은 교통과 범죄금 수납담당인 지난 5월부터 3백44명이 납부한 교통범죄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화위기에 아랑곳없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일부 부유층이 잇따라 벌미를 잡혔다.

공항공청은 25일 1천달러짜리 여행사수표 50장(5천7백여만원)을 손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미국 P대학교수 이모씨를 적발했다. 또 이날 일화 1만엔짜리 1백장 등 모두 4천5백여만원의 지닌 채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불합법한 1800여대 사기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어음·부역사기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불법기 사기꾼’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11월25일 8개 은행과 10여개 기업에 1천8백여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변인호(40)씨를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미국과 홍콩에 도피중인 변씨의 두 동생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늦은 밤 택시강도 조심

밤늦게 혼자 타는 여자승객들의 금품만을 털어낸 박모씨 등 택시기사 2명이 11월 24일 강남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20차례나 반복해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붙잡힌 최경철이 9인조 택시강도는 지난 9월에 승객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밤늦게 택시를 탈 경우 일행이 있으면 꼭 배려해주고 택시번호를 기억해두는 것이 예방책의 하나다.

생환정보 전국 독감경보 발령

전국에 유행성독감 경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산 지역에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경보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술 후 남아 폐기처리하는 비용을 합하면 3백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김치, 동맥경화 예방 탁월

김치가 동맥경화를 방지해 뇌졸중 등 심장혈관계 질환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송영욱교수는 지난 1년간 미국인 4백여명의 혈액을 김치 추출물과 반응시킨 실험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발표.

소비생활

“의식주 향락 수단 아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길은 다름없다. ...셋째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쓰는 것이다.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나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의 목적으로 먹는 것이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일체무경>

가정 생활에서 매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족들은 재미와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식구에게 의존하거나 자선을 기대하면 안된다. 아무도 재가 벌어질 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다른 식구에게 나누어 주고,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육방예경>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

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우디어나 왕의 비 사바바티가 주는 옷 오백벌을 받은 아난타가 매우 만족해 하고 있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왕이 아난타에게 의심을 품고 찾아가서 그 옷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난타가 “임금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임금님은 “그러면 그 누더기 옷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은 옷이므로 쓰지요.” “헌 옷이므로?” “헐 배개잇은?” “그것은 방바닥에 깔겠습니다.” “헌 갈개는?” “발걸레로 쓰입니다.” “헌 발걸레는?” “마룻길레로 쓰겠습니다.” “헌 마룻길레는 무엇에 쓰지요?” “대왕전하, 그것은 갈기갈기 찢어 진흙과 섞어 반죽해서 벽을 바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팔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좋은 일을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한다.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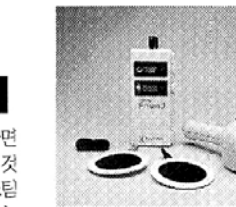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 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은 따위의 보물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집이합 마니주계경>

생상품

‘스팀패드 저주파 치료기’

요통, 관절염, 복부비만, 안면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리 치료기 ‘스팀패드 저주파 치료기’가 나왔다.

동양 침술과 서양 의학을 접목시켜 개발한 이 제품은 원하는 부위에 패드를 붙여 놓고 작동시키면 주무르기, 두드리기, 진동기능을 반복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다.



또 스팀패드를 이용 냉온 찜질을 결합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10단계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전원은 9V 건전지 1개 사용. (주)엘스, 가격은 9만8천원. (02)418-0270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건강 長壽 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안 3개 요점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명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안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 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보급가격: ₩120,000 ●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02)942-6430 강남: 마산(0551)23-9016 충북: 제천(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